

	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2>	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</div>
<div style="display: flex;"> <div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font-size: small;">담당 부서</div> <div>자치경찰정책과</div> </div>	<div style="display: flex;"> <div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font-size: small;">배포일자</div> <div>2022년 2월 27일(일) 총 3매</div> </div>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font-size: small;">담당자</div> <div> • 정책조정팀장 박정주 ☎458-7471 • 담당자 원종훈 ☎458-7299 </div> </div>	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e0f2f1;">사 진</div>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e0f2f1;">참고자료</div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e0f2f1;">보 도 시 점</div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인천자경위·인천경찰청, 관내 모든 스쿨존 교통시설 '집중점검' 나서
 - 69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동절기 중 노후·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-
 - 경미한 정비사항은 즉시 조치, 규제·예산 수반되는 경우는 단계적 개선 -
 - 세심한 일제점검으로 위험요소 철저히 차단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 매진할 것 -

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이 개학철을 맞아 노후·훼손된 스쿨존 교통시설을 집중점검하고, 안전시설 보강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나섰다.

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(위원장 이병록)에서 3월 31일까지 5주간에 걸쳐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안전 시설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관내 초등학교 269개소, 어린이집 223개소, 유치원 183개소 등 총 699개를 대상으로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업해 ▲신호등 ▲노면 표시의 마모·변색 ▲교통안전표지의 노후상태 ▲방호울타리 훼손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.

또한, 노상적치물, 입간판 등 어린이 통학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이설 또는 제거를 통해 보행안전 확보에 주력한다.

이번 점검을 통해 표지판 등 경미한 정비사항은 즉시 조치하고, 규제·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기간 종료 후에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또한, 지난 1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 중에 있는 ‘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계획’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점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고, 사고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해 개선여부를 검토하고 긴급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설치 후 심의하는 방식으로 즉각 조치하고 있다.

※ 불편·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교통 관련 시설·제도 등에 대해 카카오톡채널(인천청 ‘교통불편신고 카카오톡 채널’) 및 인터넷(경찰민원포털), 국민신문고 등 통해 참여 가능

이병록 위원장은 “개학철을 앞두고 교통안전 취약 요소에 대한 세심한 일제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철저히 차단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”라고 말했다.

한편, 지난해는 734개소를 점검해 안전표시 257개 등 교통(도로)안전 시설물 총 680건을 정비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

